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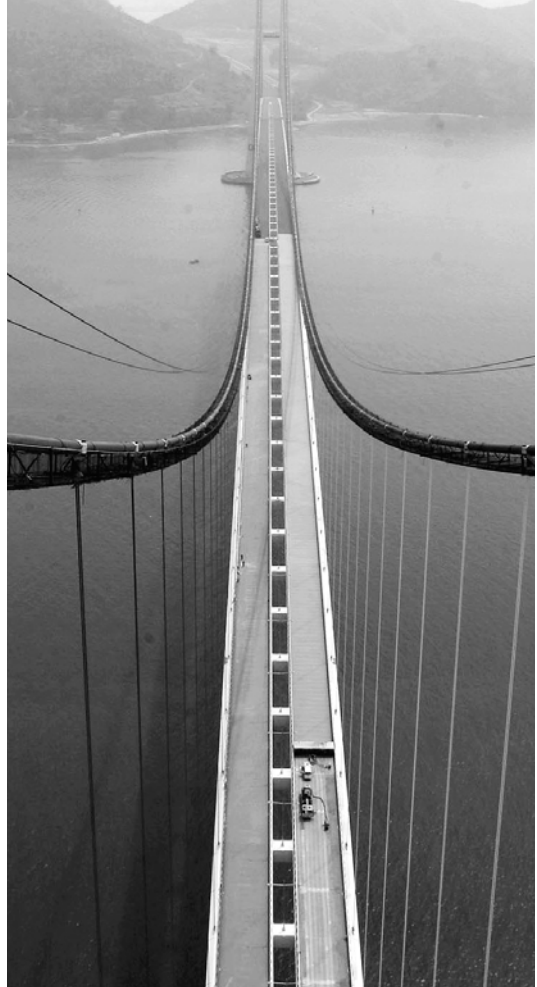
# 中크루즈 관광객 유치 이순신대교 효과 '톡톡'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둘러보려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은 많지만 여수엑스포 크루즈 부두의 규모(8만급 기준 설계)가 작아 그동안 입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광양항에 크루즈를 입항한 뒤 이순신대교를 통해 20분만에 여수로 이동하는 새로운 크루즈 상품이 개발돼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다.

전남도는 20일 "중국 암웨이사의 인센티브 단체관광단 2만5000여명이 내년 5~6월 여수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순신대교

**암웨이사 2만5000여명 내년 여수 찾아  
면세점·관광지 연계 관광 효과 극대화  
400억 소비지출·720억 생산유발효과**

이는 한국을 찾은 단일 단체여행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4만급 호화 크루즈에 3000명의 중국 관광객이 8차례 나눠 여수를 방문하게 된다. 이번 암웨이 방문 단체의 국내 직접 소비지출은 400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72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여수를 찾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에서 대규모 갈라디너쇼를 갖기 위해서다. 갈라디너쇼는 중국 암웨이 사장 등이 참여해 우수 사원 시상식 등을 겸한 행사다.

암웨이측은 박람회장 인근 엑스포 크루즈 부두는 수심이 10m내외로 얕아 14만급 크루즈의 접안이 힘들어 애초 여수 방문을 포기하고, 제주~부산 일정을 추진했었다.

전남도는 대형 크루즈를 여수 외항에 세운 뒤 작은 배로 이동시키거나 엑스포 크루즈 부두 일대를 손질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최근 여수시·광양시 등과 협의한 끝에 광양항에 임시로 이 크루즈를 접안한 뒤 이순신대교를 통해 박람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책을 내놨다.

특히 이순신대교의 야간 조명이 가동되고, 인근 여수산단의 조명이 결여되면서 광양항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 중국 측도 이를 반기고 있다.

전남도 이기환 관광정책과장은 "조만간 문을 여는 지역 사후면세점과 관광지를 연계해 크루즈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항 및 광양 국가산단 간 이동거리가 60km에서 10km로, 이동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영광기자 kroh@kwangju.co.kr

#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盧 차명계좌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하고도 사과 없어"... 조 전 청장, 항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나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때도 8300여만원 정도였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감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나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때도 8300여만원 정도였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마치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된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법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뛰어버린 바로 전남 계좌가 발견되지 않습니까--그것 때문에 부임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1.2차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남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 나로호발사 성공 유공자 특별포상 349명 청와대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나로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유공자 중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포상하고 축하했다.

나로호 성공 포상 대상자는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과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을 비롯한 나로호 개발 및 발사과정에 기여한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들로 훈장 30명, 포장 34명, 대통령 표창 40명, 국무총리 표창 45명, 장관 표창 200명 등 349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로호 성공은 두 번의 발사 실패를 딛고 빛났지만 연구개발에만 전념해온 대한민국 항공우주 과학기술자들의 땀과 눈물, 포기하지 않은 도전정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인사말과 소감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발사 실패와 계속된 연기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기념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민경주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동부 열섬현상 심화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지표면 온도 0.66℃ 상승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지에서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섬현상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공 열과 대기오염 등의 영향으로 도심지 상공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20일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진철) 신동훈 연구위원은 '전남지역 도시열섬 분포 분석 및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0년과 2009년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동부지역은 2000년과 2009년 사이 지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0.66℃ 상승했다. 이는 공장 등 개발지역은 높고 있는 반면, 경작지 등 초지는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들 지역의 개발지역은 280.2㎢ 늘어난 반면, 경작지 및 초지는 322.6㎢ 감소했다. ○영광기자 kroh@kwangju.co.kr

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 발사에 성공해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하게 됐으며 과학강국 실현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건설과 우주 선진국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면 '대우일렉'에서 계속

5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간 350만대의 대형냉장고와 소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연간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광주·전남지역의 대우일렉 협력업체 숫자는 1차 벤처 68개사를 포함, 180여개사에 달한다.

투자자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주시는 기존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더불어 '백색가전 메카'로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된다. 대우일렉 광주공장 관계자는 "워킹아웃 기간 투자가 다소 미진했지만 새 주인을 만난 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신설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로 확정

5년 만에 부활된 해양수산부가 결국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토해양부에 해양수산부 청사를 세종시에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청와대·국회와 세종청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과 행정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보낼 경우 비효율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최종 위치를 세종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정부 세종청사 5동에 자리 잡을 예정이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장·차관 집무실을 비롯해 사무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대통령 선거전에서 불거졌던 해수부 청사 유치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그동안 해수부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전남과 부산, 인천 등에서 상당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임동훈기자 tuim@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인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상준환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구한미소방, 구한미소방, 현재주소, 바로 옆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환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013-30-36/2013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6기)	광주교육대학교 (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9-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 문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상응하는 노후 인생과 빈털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성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모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워져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저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저미두수) 수심법을 요망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할, 예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로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자곡리 95-2 (광주배 상류 소재된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꿈장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